

복지부 장관,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점검

- 「의료·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」 제10차 회의 개최(3.23.) -
- 사업 준비상황,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 등 준비 현황 점검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78.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3월 23일(월) 오후 6시, 장관 주재로 「의료·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*」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, 복지부 내 보건·복지 관련 주요 부서가 참여하여 통합돌봄 본사업의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안 조율 등 담당(25.8.11. 1차 회의)

이번 회의는 3월 27일 「돌봄통합지원법*」 전면 시행을 나흘 앞두고, 본사업 추진 관련 준비상황,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24.3.26. 제정, '26.3.27. 시행)

정은경 장관은 “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,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,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”라고 당부하면서, “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,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며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35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겸 (044-202-3582)